

## PG3) 주왕산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비교

우형택·전은정·한재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 1. 서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 및 문화 경관을 포함하는 특별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 압력과 이용증가는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러한 대립 입장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수준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김정민, 2014).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환경의식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성의 검증 없이 수행되어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주왕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수준과 특성을 비교, 분석, 고찰하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왕산 국립공원 보호정책과 관리방안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자료 및 방법

환경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우형택(2003)이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환경중심적 태도(16문항)와 인간중심적 태도(16문항)로 구성된 5점 척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5월 2일 주왕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50부를 배부하여 40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 32부를 제외한 373부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T 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alpha값은 0.854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인 0.7을 상회하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탐방객과 지역주민 모두 성별에 따른 환경태도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탐방객의 경우 연령과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 수준의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주민의 경우 연령과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환경태도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높았다( $F=3.080$ ,  $p<0.05$ ). 지역주민 중 농림·축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환경태도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기술 사무직과 공무원·교사의 환경태도 수준이 가장 높았다( $F=2.553$ ,  $p<0.05$ ).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부는 경제 분야보다 자원절약에 지원해야 한다.', '퇴비보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산성비는 현대 산업사회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항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서는 지역주민이 탐방객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태도를 보였다( $p<0.05$ ).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이 탐방객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태도를 보였다는 다른 연구결과(김정민, 2014)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경제활동이 국립공원의 자원적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 이상의 개발과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탐방객과 지역주민 양자 모두 보통이상의 높은 환경태도 수준을 보여주었고, 두 이해집단 간의 차이도 없어 국립공원의 보호와 개발, 이용에 있어 두 집단 간의 갈등 양상보다 국립공원의 자원적 가치를 강화하고 보호하는데 서로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4. 참고문헌

김정민, 2014, 보호지역 이해 집단 간 환경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8(6), 779-788.  
우형택, 2003, 한국 중학생의 환경태도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한국환경과학회지, 12(7), 763-774.